

월/요/광/장

장성민



얼마 전 작은 모임에 초대받고 나간 적이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치 얘기가 나왔다. 내가 정치인이다 보니,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던 모양이다. 경제가 갈수록 어렵고, 쇠고기 파동에 이어 쌀 직불금 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짜증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노당 강기갑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예 야당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국과 촛불집회에서는 단연 강기갑 의원이 제 1야당이었는데, 최근 두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한 가지'

현안이 사그라지면서 강기갑 의원이 조금 밀렸다고 설명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참석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참석자들은 "의석수가 많다고 제 1야당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누가 잘 대변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첫째, 제 1야당에 대한 참석자들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 간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고, 둘째, 원내의석 83석을 확

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제 3야당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이 1, 2, 3위를 휩쓸었고 민주당 정치인은 동메달급에 한 명도 들지 못했다. 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가 말한 민주당은 제 3야당에도 못 든다는 발언은 소수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의석수에서는 한나라당 다음의 원내 제 2당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박근

혜 의원, 김문수 지사, 강기갑 의원이라는 한 개인 정치인의 영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을 경우보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하는 비판에 국민들은 더 귀를 기울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창일 때 광화문 촛불집회장을 담당해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치인은 강기갑 의원이었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었다. 8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시

기 때문이었고, 둘째, 원내의석 83석을 확

제거나 촛불시위 현장에 들어갔다가 먹살을 잡히는 창피를 당해야 했다.

어쩌다 민주개혁세력의 유일한 정통성을 갖는 민주당이 이렇게 됐을까. 민주당은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제 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남북화해협력의 통일세력의 대변자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늘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이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당의 기본인 정체성 상실일 것이다. 둘째, 의원의 능력과 자질이 상관없이 민주당 간판만 들고 나오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구조이다. 셋째, 정권交代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이다.

현재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 민주당의 기본 정책과 노선이 떠오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장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국민은 다 아는데, 혹시 민주당 지도부만 모르는 것은 아닐까.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제 1야당'도 아닌, 원내 2당의 알량한 권력에 취한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대목이다.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옛 도청 별관 '갈등' 지역사회가 나서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의 존재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5·18단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보존'과 '철거'를 내세우며 3개월째 지루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18단체 대표의 면담에서도 성과는 없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유 장관은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5·18단체와 추진단은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측은 지난달에도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5·18단체가 유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 면담도 5·18단체가 토론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단체나 광주시 등의 중재로 설사 토론회가 열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구(舊) 전남도의회 건물의 해체작업이 중단됐고 부지 터파기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이미 확보한 국비 예산까지 반납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는 만큼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5·18단체와 추진단은 당장 약속한 토론회부터 열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상대를 비난하며 시간만 끌고 있을 때가 아니다.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인 뒤 여론조사나 시민투표 등을 통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를 비롯 지역사회도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 문화중심도시를 광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 토론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단체나 광주시 등의 중재로 설사 토론회가 열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전남쌀 가격 '전국 최하위' 대책 서둘러라

전남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에서 가장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전남의 쌀 생산량은 전국의 18.1%를 차지할 만큼 생산 비중이 가장 높지만 쌀 값은 15kg당 15만8천53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다. '농도(農道)' 전남의 위상이 안타깝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이 높다는 심상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경기지역 쌀에 비해서 3만원 가까이 싸고 강원, 충남, 경남지역 쌀 가격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북쌀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니 호남쌀의 명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호남지역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의 쌀값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 평균을 밑돌며 최하위권을 머물렀다. 전남 쌀은 2004년과 2005년 전북에 이어 두번째, 2006년과 2007년에는 충남과 전북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쌀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어 재고 쌓이고 있는데다 쌀시장까지 개방되는 마당에 우리의 쌀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남쌀이 국내에서조차 명성을 잃고 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물류비용이 높다는 심상하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경기지역 쌀에 비해서 3만원 가까이 싸고 강원, 충남, 경남지역 쌀 가격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북쌀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니 호남쌀의 명성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호남지역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전남과 전북의 쌀값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 평균을 밑돌며 최하위권을 머물렀다. 전남 쌀은 2004년과 2005년 전북에 이어 두번째, 2006년과 2007년에는 충남과 전북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박성훈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상 진술증거에 대해 이 법칙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실물증거에 대해서는 이 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이 법칙이 시행됨에 따라 극히

자. 이는 '압수목록을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가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사법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법칙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도입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수집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1960년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억지(抑止)'에 두고 있다. 즉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그만큼 수사기관은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수사기관이 사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여 유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를 배척하고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한 범죄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는 정의(正義) 관념에 현저히 반하여 사법시스템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살인사건 수사시 영장에 의해 피해자의 혈액과 피의자의 지문이 묻어 있는 칼을 압수하면서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

있다. 이 법칙은 1980년대 이후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로 전파되었다.

필자는 캐나다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 캐나다는 이 법칙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들였지만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즉 어떤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법칙이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되어 정정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공중목욕탕 샤워기 이용 안할 땐 주변 정리를

주말에 오랫동안 목욕탕에 갔다. 휴일이라 그런지 목욕탕 안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혼잡했다. 그런데 샤워물이 나오는 여러 곳에는 비누와 샴푸, 린스 등 목욕할 때 사용하는 용품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잡았는데, 옆을 보니 물건만 있고 사람은 없어서 자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와서 보고는 앉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리를 비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니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단 내 옆자리뿐만 아니라 그 옆자리도 마찬가지였다. 목욕 도중 자리를 오래 비우려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자리를 비웠으면 한다. 공중목욕탕이 개인 혼자만의 공간도 아닌데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문화인으로서 상식에 어긋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목욕탕 안에서 나만의 욕심이나 이익만 쫓기 말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공중 도덕심을 가졌으면 한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기고

최경철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모든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발생한 식품 관련 사고로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농·수·축산물을 재배·양식·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 중에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식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고 식품을 제조하며 유통시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류정도는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식품위생전문가들의 견해이며 공감하는 부분이다.

반면 환경오염에 의해 식품 중에 포 함될 수 있는 물질은 인간의 편의성 추구를 위한 산업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인류에게 주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의도적 사용으로 먹을거리에 남게 되는 잔류물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염물질, 그 밖의 생물학적 유해미생물 등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식품안전의 절대적 힘

사실 모든 먹을거리에 리스크(위해도)가 제로일 수는 없다. 식품의 원재료도 되는 농·수·축산물은 재배·양식·사육과정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한 병충해 방지와 질병 치료, 예방 또는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농약 등을 사용하다보니 식품에는 미량물질이 잔존하게 된다. 이 잔류물질, 환경오염에 의해 식품 중에 포 함될 수 있는 물질은 오염물질로 규정,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잔류물질은 살포시기나 휴약기간 등을 잘 준수한다면 최종 생산 때에 그 잔

위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식품안전의 위해 요인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 및 과정에 대한 중점관리에 의해 최소화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사건은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인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성에는 관심이 없고 타인을 배려하려는 이타심이 실존된 경제적인 이익추구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작은 관심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막는 데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약품분석과장>

입원 환자 기본적인 간병은 병원 의무 아닌가

아버지께서 며칠 전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간병을 해 줄 가족이 없어서 아버님을 돌보드리기 어려웠다. 간병사를 고용하자 한달에 180만원씩이나 하는 비용을 댈 수가 없었다.

기본적인 환자수발은 간호사 등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는 요즘 입원하면 웬만한 간병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사를 사야 한다고 당연한 것처럼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는 자칫 간병을 제대로 못하면 욕창이 발생하거나, 낙상을 당해 더 큰 2차적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환자가 약을 잘못 먹는 투약 오류 사고도 발생,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간병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원에서는 그야말로 수술하고 처치만 했

지 그 나머지는 전부다 환자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병원들의 이런 관행은 너무나 불합리하며 병원이 환자쪽에 떠넘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를 고용하던지, 혹은 전문 간병인을 채용해 환자를 돌봐주는 게 옳다. 국민들은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또한 수술비나 기타 제 경비 등 병원에 치료비를 내는데 병원에서는 수술과 처치만 할뿐 그 나머지는 환자쪽에서 알아서 하라니 뭔가 잘못 된 것이다.

환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다 지불하고도 간병인까지 따로 고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료 관행을 정부는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즉시 시정해야 한다.

▲유지상·광주시 북구 누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1882년 1월 14일 출생인 찰스 H. 다우와 에드워드 D. 존스, 그리고 찰스 M. 버그스트레서리는 세 남자가 의기투합, 회사를 세웠다. 회사 이름은 버그스트레서의 양보로 두 사람의 이름만 따 '다우존스'로 정했다.

사실은 지하실 골방, 그러나 성공은 빨랐다. 세 남자는 뉴욕의 기업과 은행을 돌며 경제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들은 '고객들의 오 후렌지'라는 신문으로 독자에게 배달됐다. 이 작은 신문이 세계적 권위지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태가 됐다.

이들의 이름을 불멸로 남긴 것은 '다우존스'로 불리우는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였다. 다우존스 지수가 처음 나온 것은 1896년 5월 26일. 첫날 지수는 40.94포인트였다. 이후 다우존스는 110여년동안 세상의 희비를 갈라왔다.

다우는 "농부는 씨를 뿌리고 하루이틀이 지난 뒤 파종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땅을 뒤엎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은 점심 때 사고 밤에 투자이익을

계산한다"라고 말했다. 주가 전망의 속도와 중요도를 갈파한 말이다.

하지만 세상이 계산대로 움직이는가. 천재 아이작 뉴턴은 주식투자로 실패한 뒤 "천재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도무지 알수가 없다"고 탄탄했다. 자본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카를 마르크스는 "주식투자는 우리의 돈을 노

리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는 가치있는 일이다"라고 옹호했다가 돈만 날렸다.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예일대학의 어빙 피셔는 1929년 대공황 직전 "주가는 영원히 끊기지 않는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고 호언했다가 명예와 돈 모두를 잃었다.

주가폭락이란 대재앙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 전통적 의미의 주가에측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하긴 오만가지 변수가 충돌하는 세상을 몇가지 변수만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겠는가.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다우존스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